영덕 유금사 발굴서 9세기 금동불 출토



영덕 유금사 3층 석탑(보물 제674호) 보수사업을 위한 정밀 발굴조사 중 9세기 경 금동여래입상이 출토됐다.

재)삼한문화재연구원(원장 김구군)은 "영덕군 의뢰로 유금사 3층 석탑이 전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금동여래입상 1구, 호신불 1구 등을 발굴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발굴된 금동여래입상〈사진〉은 완전한 모습으로 크기가 39.5cm이다. 거신광배는 탈락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잔존상태가 온전하다. 오른손은 가슴까지 올려 시무외인을 왼손은 내려 여원인을 하고 있다. 통견법의는 안에 속옷을 묶은 띠 매듭이 있고, 통견은 전체적으로 'U' 자상이며, 흘러내리는 아육양식의 주름이 음각 새김선으로 새겨져있다.

삼한문화재연구원 측은 "뒷면에 탕구 등의 구멍이 몸 전체에 뚫려 있고, 호상과 'U' 자상의 통견법의 음각새김 등으로 볼 때 9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불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월남사지 석탑서 청동사리병 발견

25일 해체보수과정서 출토



강진 월남사지 3층석탑 해체 보수 과정서 청동사리병〈사진〉이 발견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7월 25일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 중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해체보수 과정에서 청동병(높이 22cm, 가장 넓은 동체부 너비 11cm)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동병은 삼층석탑 3층 탑신석 하부에서 나왔으며, 사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현장에 나가 청동병을 수습했으며, 센터에서는 엑스레이(X-ray)와 컴퓨터단층촬영 등 비파괴조사와 부식물 제거 · 안정화 처리 · 재질강화처리 등 각종 보존처리를 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리산 권역 원효설화, 화엄 신앙에 기반"

이종수 교수, 보조硏 · 순천대 남도硏 공동 워크숍서 발표

지리산권 화엄사 등 4곳만 관계
설화 전래 사찰들 화엄종과 관련
원효-의상 간 라이벌 구조 특징
민중 설화선 원효가 우위를 점해
"국내 학승 우월성 드러낼 의도"

지리산 권역에 전래된 원효 스님 설화들이 스님이 역점을 둔 '화엄 신앙'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수 순천대 HK 교수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호성)과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소장 남호현)가 개최한 공동 하계 워크숍 학술 세미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리산권 원효설화의 특징과 문화사적 의미' 발제에서 지리산권 원효 설화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원효 설화 전승 사찰은 남한에만 56개소이다. 이중 원효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은 40개소, 수행처는 7개소, 중창 사찰 5개소, 주석처 3개소, 오도처 1개소로 분류된다.

이를 다시 지역으로 나눠보면, 지리산 권역의 원효 관련 사찰은 전남 구례 화엄사, 사성암과 경남 산청 율곡사와 정취암에 한정됐다. 이 교수는 이들 4곳 사찰에 전해지는 원효 설화의 내용과 특징들을 분석했다.

화엄사의 경우 원효와 의상의 문답이 설화로 전해지는데, 이 안에서는 '문수보살 상주설법처', '민족'과 같은 용어가 나온다. 이 같은 용어를 통해 전근대시기 원형이 만들어진 후 근대까지 계속 덧붙여지며 설화가 구성돼 왔음을 추정했다.

이 교수는 "조선시대까지도 오대산이 문수보살 상주처로 널리 신앙되고 있어 지리산에도 문수보살이 상주한다는 믿음이 정착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또한 민족이라는 용어는 근대의 산물로, 민족을 운운하는 내용은 근대 이후 삽입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성암 전승 설화를 제외하면 나머지 3곳의 전승 설화는 원효와 의상 스님을 경쟁 구도로 설정해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특징을 보인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지리산권 원효 설화에 등장하는 원효와 의상은 고려시대 이후 두 스님을 경쟁 관계로 보고자 했던 당대 사람들의 생각이 투영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중국 최고 고승보다 도력이 높았다고 알려진 의상 스님을 원효 스님보다 도력을 낮게 설정함으로서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순수 국내 학승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지리산 권역서 전승되는 설화의 설정은 원효와 의상의 사상에 근간이 된 '화엄'과 연결된다고 봤다.

특히 고려 화엄종의 수장이었던 대각국사 의천이 원효와 의상을 높이 평가해 각각 '화쟁국사'와 '원교국사'로 추증해 비문을 세운 뒤 원효도 화엄종 개창의 주요 스승으로 인식됐음을 주목했다.

이 교수는 "고려 화엄종의 수장이었던 의천이 원효를 재평가함에 따라 원효는 다시 불교사상사의 전면에 재등장했다"면서 "화엄 신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원효와 의상은 라이벌로 여겨져 왔고, 그런 인식들이 설화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계승이었던 원효가 지계승이었던 의상보다 민중들에게 친근하게 받아들여졌고, 그의 전기에 나타나는 기행으로 인해 의상보다 도력 높은 승려로 인식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밖에도 학술세미나에서는 김호성 보조사상연구원장(동국대 교수)이 '원효의 징성가에 대해'를 발표했으며, 논평자로는 석연경(시인, 청암대), 김춘호(원광대)가 참여했다.

'남도문화에서 원효의 재발견'을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는 순천대에서의 학술 세미나를 비롯해 송광사, 불일암 순례 등이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세종 학술 · 교양 도서 佛書 10종 선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부문별 선정 결과 발표
학술서 철학 · 종교서 '강세'
교양 부문 서적 3종 불과



올해 우수한 학술 및 교양 도서를 선정하는 '2017 세종도서'에 불교 관련 도서 10종이 선정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기성)은 7월 21일 세종도서 학술 · 교양 부문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불교 관련 서적은 학술 부문 7종, 교양 부문 3종 등 총 10종이 선정됐다.

학술 부문 도서로는 박태원 울산대 교수의 〈돈점 진리담론:지눌과 성철을 중심〉을 비롯해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의 〈심층마음연구:자아와 세계의 근원으로서의 아뢰야식〉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의 〈요가수행자의 불교적 바탕:유가사지론의 인도 · 티베트 · 동아시아 전파〉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의 〈인도철학에서 본 근현대 한국불교 사상가〉 △가츠라 쇼류의 〈인식론과 논리학〉 △사재동 충남대 명예교수의 〈불교문학과 공연예술〉이 이름을 올렸다.

학술 부문 중 철학 분야에서 선정된 박태원 교수의 〈돈점 진리담론〉은 돈오사상의 시작부터 돈점 논쟁의 핵심을 지눌(1158~1210)과 성철(1912~1993) 스님을 중심으로 살피고, 돈점 논쟁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담론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자경 교수의 〈심층마음의 연구〉는 우리의 심층마음인 아뢰야식이 어떻게 깨어 활동하는지, 아뢰야식이 어떤 방식으로 자아와 세계의 근원이 되는지를 밝히고 있다.

김선근 교수의 〈인도철학에서 본 근현대 한국불교 사상가〉는 인도 고대종교를 회통한 불교의 초기 모습부터 근현대 한국불교를 이끈 동산, 청담, 태허, 석주, 성철, 광덕 스님 등을 조명했다.

상반기 교양 부문에는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불교를 철학하다〉를 비롯해 △장웅연(장영섭) 불교신문 기자의 〈불교에 관한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물음49〉 △김택근의 〈성철 평전〉이 선정됐다.

학술 부문에서 불교는 강세를 보였다. 철학 분야에서도 2종이 이름을 올렸고, 9종이 선정된 종교 학술에서는 4종이 선정되는 성과도 나왔다.

반면, 교양 부문에서는 12종이 선정된 종교 교양 분야 서적 중 단 2종만이 불서였다. 실제 5월 22~31일 도서를 선정한 심사위원회는 총평을 통해 "불교서적 중 법문은 선정에서 제외했다. 교양적 지식 습득과 대중성을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뒀다"면서 "전체적으로 불교 관련 서적이 적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도서는 옛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이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매년 선정 · 발표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선정 도서에 대해 종당 1000만 원 이내에 구입해 공공도서관 등 1100여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효당 최범술, 만해전집 발간 주도"

김광식 교수, 27일 만해학회 세미나서 주장

만해 스님과 효당 최범술 스님의 관계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만해학회(회장 김광식)는 7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만해와 효당 최범술'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만해와 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관계를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특히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만해학회장)는 '만해전집' 발간에 있어 효당 최범술의 역할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한용운 전집 발간과 만해사상의 계승'을 통해 '만해전집' 발간이 3차례 시도되며, 이 중심에는 효당 최범술 스님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만해전집' 발간 추진은 만해 스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방공간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6.25전쟁으로 인해 소기 성과를 내지 못했다. 2차 시도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이뤄졌다. 이때 주역은 고려대 문학회를 이끌고 있었던 조지훈이었다. 이때 작업공간은 다솔사와 각지의 도서관 등이었고, 1만매가 넘는 원고가 작성됐지만 출간되지는 못했다. '만해전집'이 빛을 본 것은 1973년 신구문화사의 출간으로 인해서다. 당시 발간을 주도한 게 바로 효당 최범술 스님이다.

김 교수는 "효당은 1918년 해인사 지방학림 수학 중 만해의 강연을 들었고, 1933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청년총동맹의 집행위원장을 할 때부터 본격적인 사제관계가 된다"며 "이때부터 만해사상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만해의 자료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당은 '만해전집'을 편집 · 발간케 한 주역"이라며 "요컨대 그는 전집 간행위원회의 대표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만해학회(회장 김광식)는 7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만해와 효당 최범술'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2017년 불교학과 51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불교학과 [9월 2일(토) 오후 5시 개강]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CD 배송]



학 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과 목	1. 화엄경 2. 아미타경과 정토 3. 대승불교와 밀교 (천수경)	4. 불교의 체계적 이해 5. 불교문화 6. 선불교	7. 근본불교 8. 반야심경 9. 유식불교	10. 인도불교 11. 중국 · 한국불교 12. 법화경
교수진	법산스님(본대학장), 정엄스님, 주명철교수, 정성준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활인스님, 김호귀교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최종남교수, 황순일교수, 김경집교수, 박종교수, 차차석교수, 정병조교수			

모집인원(불교학과) 10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원서교부 및 접수 2017년 8월 1일부터
문의 02)732~1206~8

※ 한글의식반 · 전통의식작법(2년 과정) 9월 9일(토) 오후 1시 30분 개강
※ 전통범패의식반(2년 과정) 9월 13일(수) 오후 2시 개강
※ 다도학과(2년 과정) 9월 12일(화) 오후 2시 개강
※ 불교미술학과(3년 과정) 9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개강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 02)732-1206~8 F. 02)732-1207 http://www.dongsanbud.net

제7회 반야학술상 공모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제7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 우수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야학술상은 매년 저술상과 논문상 두 분야를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연구자들의 많은 추천과 응모 바랍니다.

저술상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출간된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창의적인 저서 및 역서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저자 1명에게 500만원 지원

논문상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국내외 불교학, 종교학 및 철학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불교학 및 불교문화 우수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저자 1명에게 500만원 지원

추천 및 응모 마감 2017년 8월 31일 (우체국 소인 확인된 것까지)

추천 및 응모방법은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banyaresearch.org)를 참조바람.

시상일 및 장소 추후 공지

문의처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구자상 (010 · 4731 · 3471)
우명주 (010 · 9027 · 5193)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